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임금협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파업 투쟁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러한 관행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들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강경 파업을 주도했던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 인천지철 노조위원장, 코오롱 구미공장 노조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경제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 방향'이라는 제목의 좌담회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민주노총은 이제 계급 투쟁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투쟁적 이념적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운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문화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보다도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잘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가 금년 임금협상을 조기에 무교섭으로 매듭지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문제를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3년간 고용보장, 임원의 연봉반납 등으로 노조



불자 세상보기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노사문화에 불어오는 새 바람

의 결단에 화답했다. 다른 기업현장에서도 노조는 투쟁 대신 협력을, 회사는 감원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으리라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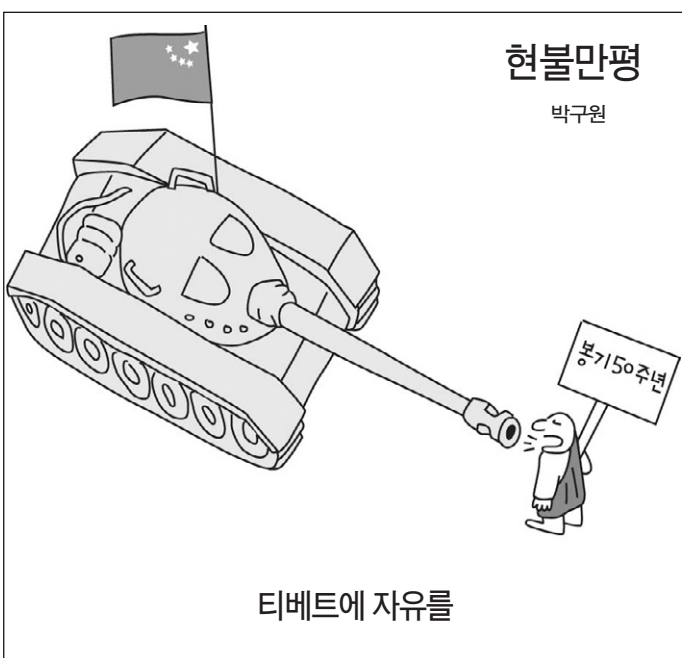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존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 원융무애한 상즉상인(相即相入)의 관계 속에 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독자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의존성의 바탕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가 화합과 화쟁의 덕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화합은 필수적이다. 불교의 한 초기경전에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기본에 관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살피고 복지를 배려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불자기업의 기업주는 이러한 불교

정신을 유념해서인지,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해외연수를 시키고, 얼마 후엔 퇴직할 여직원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노동자의 편에 서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회사원들도 사용자를 신뢰하고 회사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지금은 사용자나 노동자 그리고 국가를 막론한 우리 모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때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을 상품가지로 보면 안 되며 노동은 곧 인격이라고 봐야 한다. 경영상의 문제를 비정규직이나 인원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가급적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보다는 회사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처럼, 국가도 기술진보의 열매를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공평히 나눠야 하며 노동환경이나 노동방식도 인간적인 환경과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 노동자들은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라는 뜻의 가르침처럼,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도 창조적으로 회사일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꽃 피우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티베트에 자유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3월의 테마-처음처럼

초심은 초발심이고 초발심은 초발보리심으로 다른 말이 아니다. 여기에 모두 최초(初)라는 말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초는 시간적인 처음일 뿐만 아니라 완전성에 대한 자각의 시작을 의미한다. 때문에 초심은 수행과 깨침의 완성에 대한 개개인의 불완성으로 제시된 개념으로서 보리심에 대하여 그 일부분이라든가 그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만큼 초심은 애당초 모든 존재에 완전하게 구비돼 있다고 간주하는 보리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완전한 보리심의 성품을 불성·자성·본성·법성이란 부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품의 구비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라밀의 수행이고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초심 곧 보리심은 보리심에 대한 자각이다. 때문에 대승의 보살이려면 반드시 보리심이 전제가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보리심이 없는 보살이란 있을 수 없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먼저

“보리심 체득하려면 바라밀 수행해야”

보살의 발심에 대해 질문한다. 모두 발심에 대한 자각과 그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경우 발심은 반드시 수행·깨침·교화를 포함한 구조로서 믿음과 서원의 현성이다. 그래서 발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경지에 대한 완성이다. 발심하는 때가 정각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경우 발심은 자기확인과 자기성취이다. 자기확인이 깨침이라면 자기성취는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전자는 지혜의 터득이고 후자는 지혜의 실천으로서 자비의 활동이다. 그래서 발심의 시작은 수행이고 발심의 완성은 깨침이다. 곧 올바른 발심은 올바른 깨침이다.

때문에 보살은 중생을 잊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자비를 내어 댈려고 그들을 제도하려는 서원으로 모든 공덕을 일체에게 회향한다. 그래서 발심은 지금·여기·나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피며 성취할 것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생생하게 살아 작용하는 자신을 증시한다. 당나라 시대의 경정도부(鏡清道愆 : 868-937) 선사는 일찍이 현사사비(玄沙師備 : 835-908) 문하에서 열심히 수행했지만 무슨 까닭

인지 아무리 해도 선에 들어가는 단서도 만나지 못했다. 어느 날 스승인 현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때 현사는 경정에게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계곡의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서 무한한 자신을 자각하는 소식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곧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순간에 물소리와 영원한 합일을 터득하라는 것이다. 곧 시간적으로는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한없는 무량수(無量壽)와 공간적으로 끝없이 어디나 누구에게나 걸림이 없는 무량광(無礙光)을 현실의 바로 이 내 몸뚱이에서 일어(一如)한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발심이라는 것이다. 발심의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젊은 날의 경정에게 현사사비가 몸소 체득하고 관찰해볼 것을 지시한 것은 그러한 소식이었다.

김희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社說

포교는 불교백년대계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위원회와 신도총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이들 위원회는 포교원의 존립목적을 극대화 시켜 줄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기구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포교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국불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는 포교 위기 상황이다. 소위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전환되는 시대적 코드를 읽기는 했지만 도심에 안착하는데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간을 허비했다.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가 의욕만큼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종교는 아주 무서운 속도와 조직력 그리고 투자를 통해 한국의 종교 지평을 바꿔가고 있다.

포교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과 결과로 말해야 할 때다. 이런 때 포교원이 발족시킨 여러 위원회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맡겨져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첫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스님들의 면면이 포교 현장의 사정에 밝고 포교 의지가 강한 스님들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각 위원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포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양적인 과시보다는 질적인 내실이 최상이다. 누가 뭐래도 포교는 전략이다. 이번에 발족한 위원회들이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 수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정진 독려하는 법석 늘어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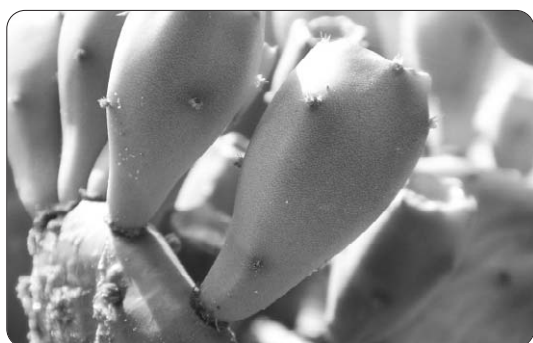
선불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자연발생이 아니다. 날로 각박해지고 기계화 되어 가는 인성을 본래정성으로 돌리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에서 선불교의 전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촉발된 것이다.

물론 불교계가 선불교의 우수한 측면을 강조해 왔고 학자들이나 실천 수행자들이 세상을 향해 선의 효용성을 홍보한 것도 사실이다. 서구의 지식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외풍(外風)이 우리 것의 귀한 가치를 몰랐다는 부끄러움으로 반사된 경향도 없지 않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선수행에 대한 관심은 매우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러한 관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배가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이미 검증되고 있다. 실천 현장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법석이 많이 만들어지고 수행정진 하는 자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담선법회나 백고좌법회 형식의 법회들이 다양하게 기획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거기에 템플스테이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참선이 자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선 수행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전 공부로 해방을 밝히는 길을 찾아가는 정진의 법석이 늘어나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바로 벽송선회사안성 활인선원의 정진대법회 등이 필요한 이유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